

# 세계 가톨릭 의료기관협회 3차 학술대회 결과

:: 로마 바티칸, 2007년 5월 3~5일

세계가톨릭의료기관협회 임시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는 제3차 세계 보건사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1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서 가톨릭 보건 사목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느님의 중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톨릭교회의 보건 사목이 교회의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 직무를 혁신하라고 요청하셨다. 혁신이란, '사목적 제안 자체의 쇄신과 심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역동력'을 말한다.

대회시작 이틀 후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진보하는 보건 사목의 책무'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혁신

을 이룰 수 있을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생각해 보았다.

- 1 가톨릭 의료 기관은 협회의 전략적 계획 과정 안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협회의 주요 이념을 실천하고 실질적 결과를 얻어야 한다.
- 2 가톨릭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협회의 종합적인 판단과 이념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 개개인에 맞게 협회의 전문성과 각 기관내의 행정적 발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각 기관들의 이념 실천과 지속적인 평가에 의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 3 협회는 협회 내의 단합과 교회 내의 다른 단체와의 화합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 또는 비종교적인 단체와도 마땅히 화합해야 한다. 이런 화합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화합의 효과적인 본보기들을 보여야 한다.
- 4 협회는 빈곤층과 소외층, 사회 취약 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실제로 인간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의존적 상태를 지양하는 협회의 특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의지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국경 없는 화합과 공유를 장려하면서 전략적이고 투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5 가톨릭 의료기관은 기본적 인권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린 의료 서비스, 비전을 가진 의료 서비스, 사회 공동체적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정밀한 사회적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토의하고 숙고하면서 우리는 교구 주교들과 주교회의들, 국내외적으로 협력해 나

■  
우리는 종교적, 사회적 신분으로 적절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 연합인 AISAC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새로워진 사실은 협회와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와의 적절한 결정 후에 구성되어야 한다.

갈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보편 교회의 직무인 우리의 화합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는 세계가톨릭의료기관협회가 그러한 화합 작업과 공유를 고취시키고 용이하게 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사회적 역할을 하며, 국제적 연합단체로서 세계가톨릭의료기관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협회와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그리고 다른 타 단체의 적절한 판단과 결정 후에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회의를 마치며, 교황청 보건사목 평의회와 의장이신 하비에르 로사노 바라간 추기경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의사'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선교를 실천하는데 헌신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바란다.